



116

International Magazine of Space Design | b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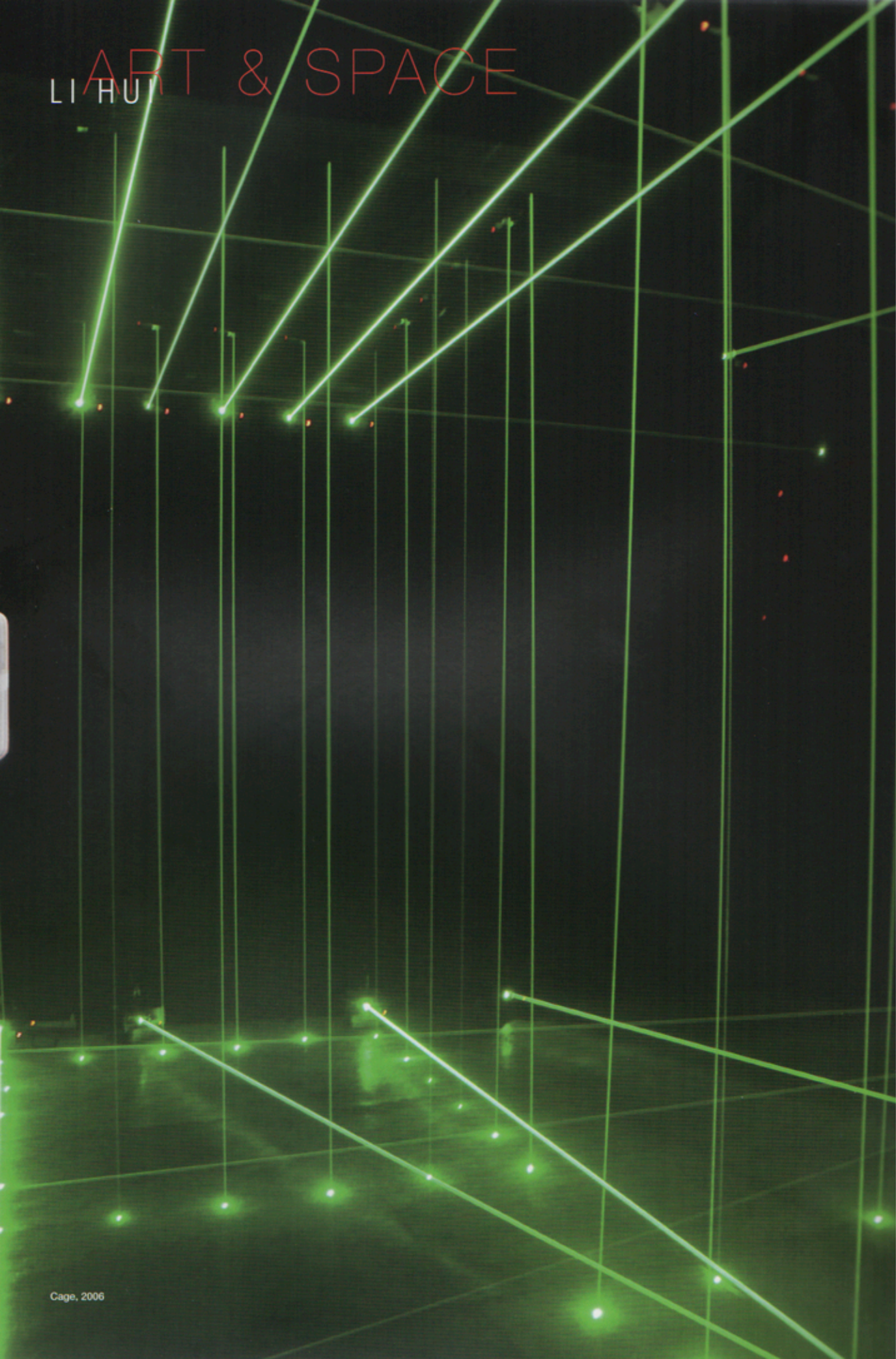
DOPLUDO COLLECTIVE | W VERBIER | GOOGLE,
KUALA LUMPUR | BICOM COMMUNICATIONS |
ZENITH BARTER OFFICE | bob COORDINATION
STOCKHOLM FURNITURE & LIGHT FAIR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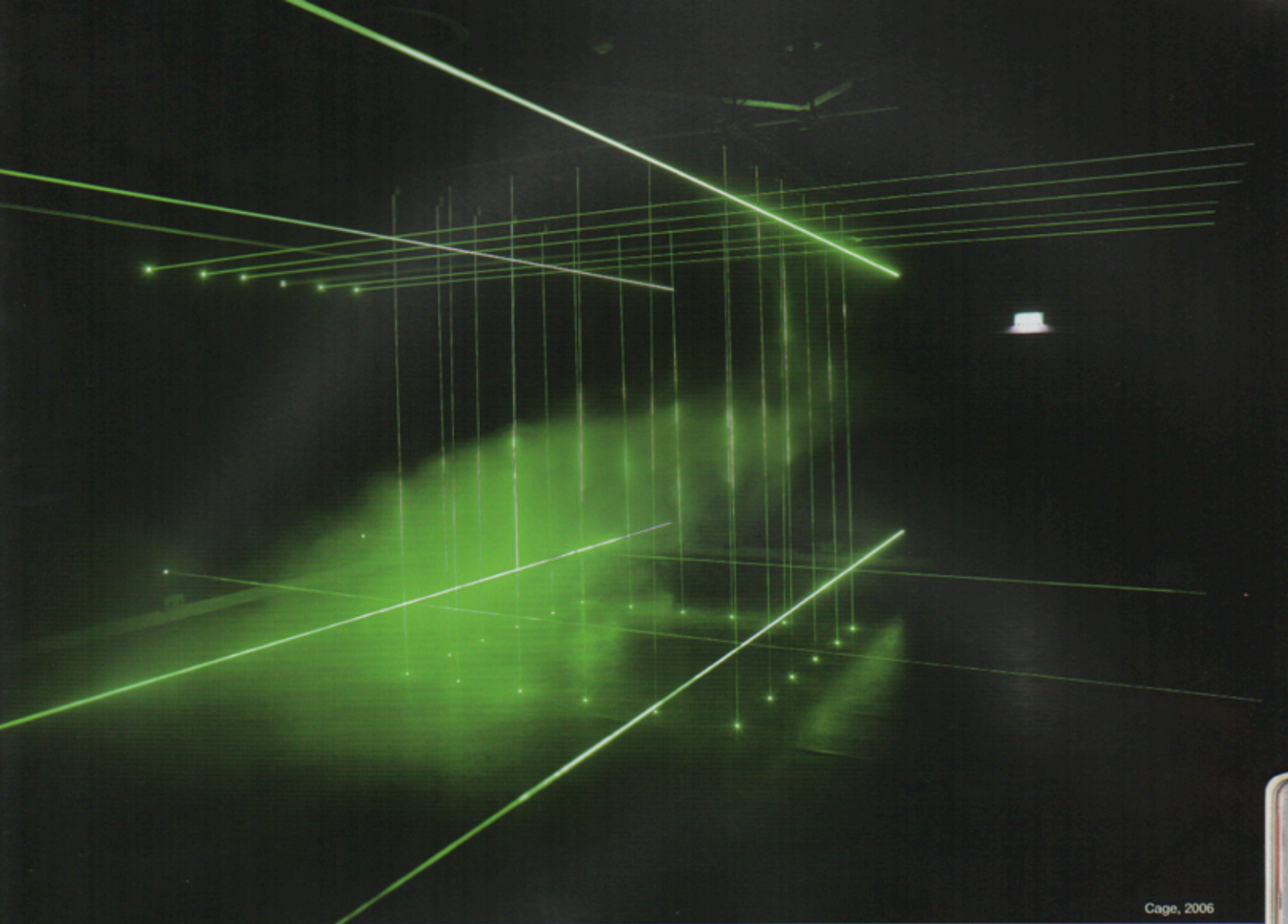
bob COLLECTION :
RETAIL SHOP



ISSN 1759-2845

LI HUI ART &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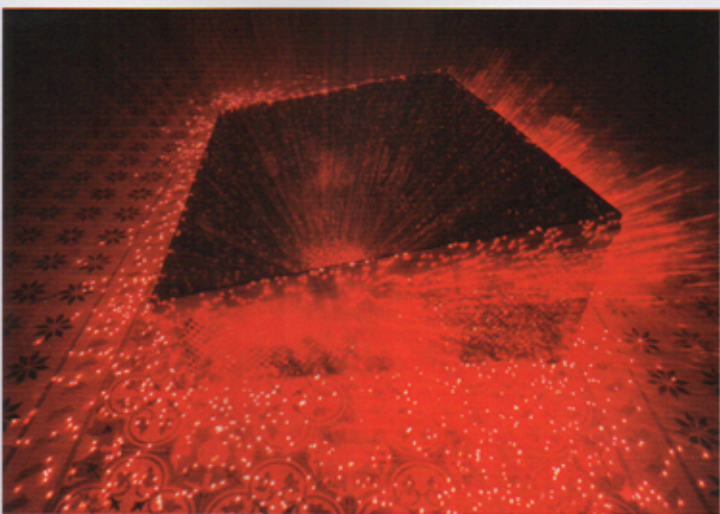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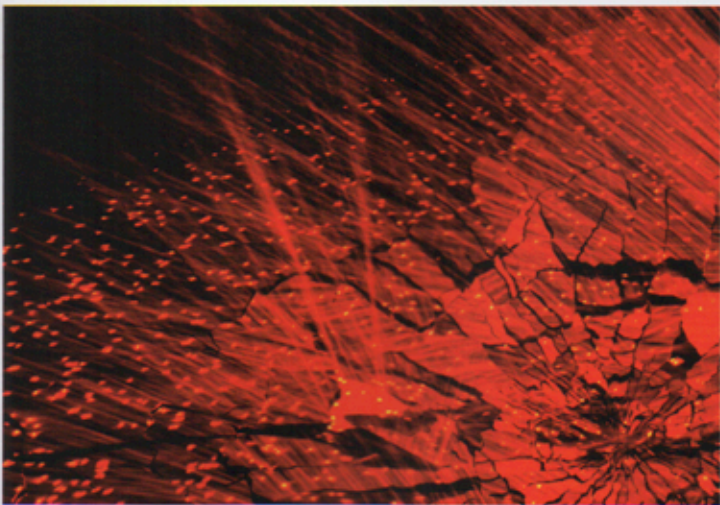
Cage, 2006

Multimedia artist Li Hui employs a vast array of media, materials and techniques to create futuristic installations and light sculptures that transcend the boundaries of language, logic and linear time. Lasers and mirrors have long been integral to Li Hui's work. He aims to communicate with his audience on a mental and spiritual level by creating a powerfully atmospheric environment with his light sculptures. The installation <Cage, 2006> uses a mirror and green lasers to construct a 3-D box in the air. In the exhibition room, the visitor is temporarily and randomly surrounded by a cage made of laser beams. Hui uses the cage, which encloses but does not harm the visitor, to explore individual boundaries and demonstrate how people are influenced by purely optical though physically irrelevant barriers. Visitors are confronted with both a liminal and a powerful visual aesthetic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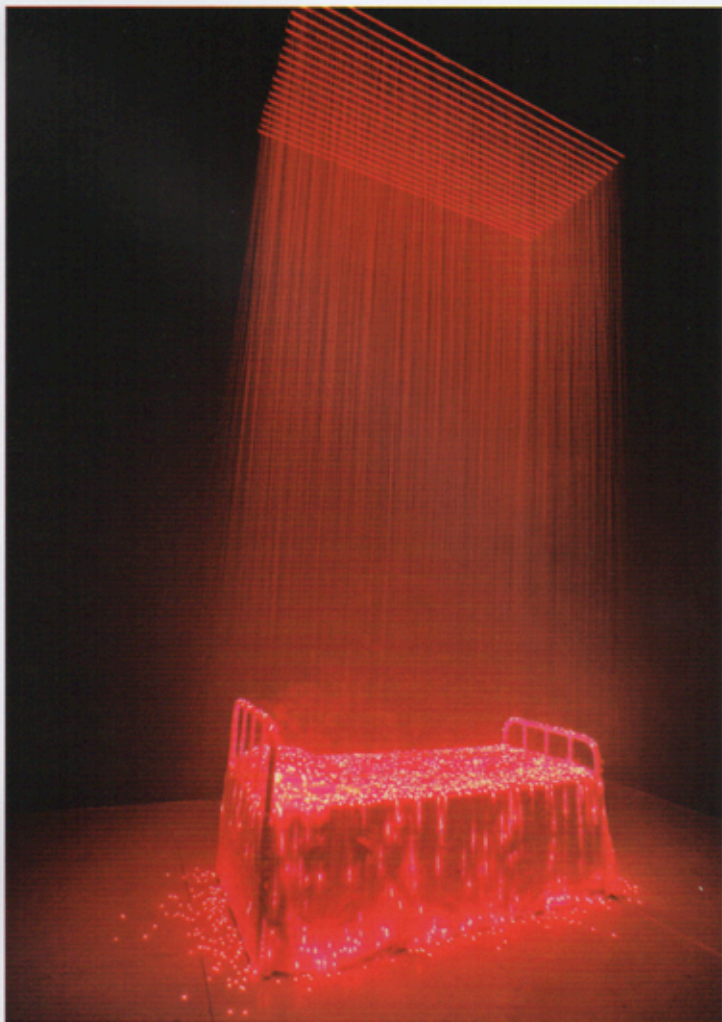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인 리 후이는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소재, 기술을 이용해 언어, 논리, 그리고 일직선적인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미래적인 설치작품과 빛 조각들을 만들어낸다. 레이저와 거울은 오랫동안 리 후이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그는 그의 빛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강한 이미지의 공간에서 관객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꾀한다. 2006년 작품 <케이지>는 거울과 녹색 레이저를 이용해 공기 중에 3D 상자를 구축한 작품이다.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레이저 빛을 만들어내는 새장에 둘러싸이게 된다. 작가는 이처럼 관객을 둘러싸지만 해치지 않는 새장을 통해 개인의 영역을 탐구하고, 물리적으로는 관련 없는 오직 시각적이지만 한 장애물에 의해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고자 했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한정적이지만 강력하고 시각적인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LI HUI ART & SPACE





Cracked,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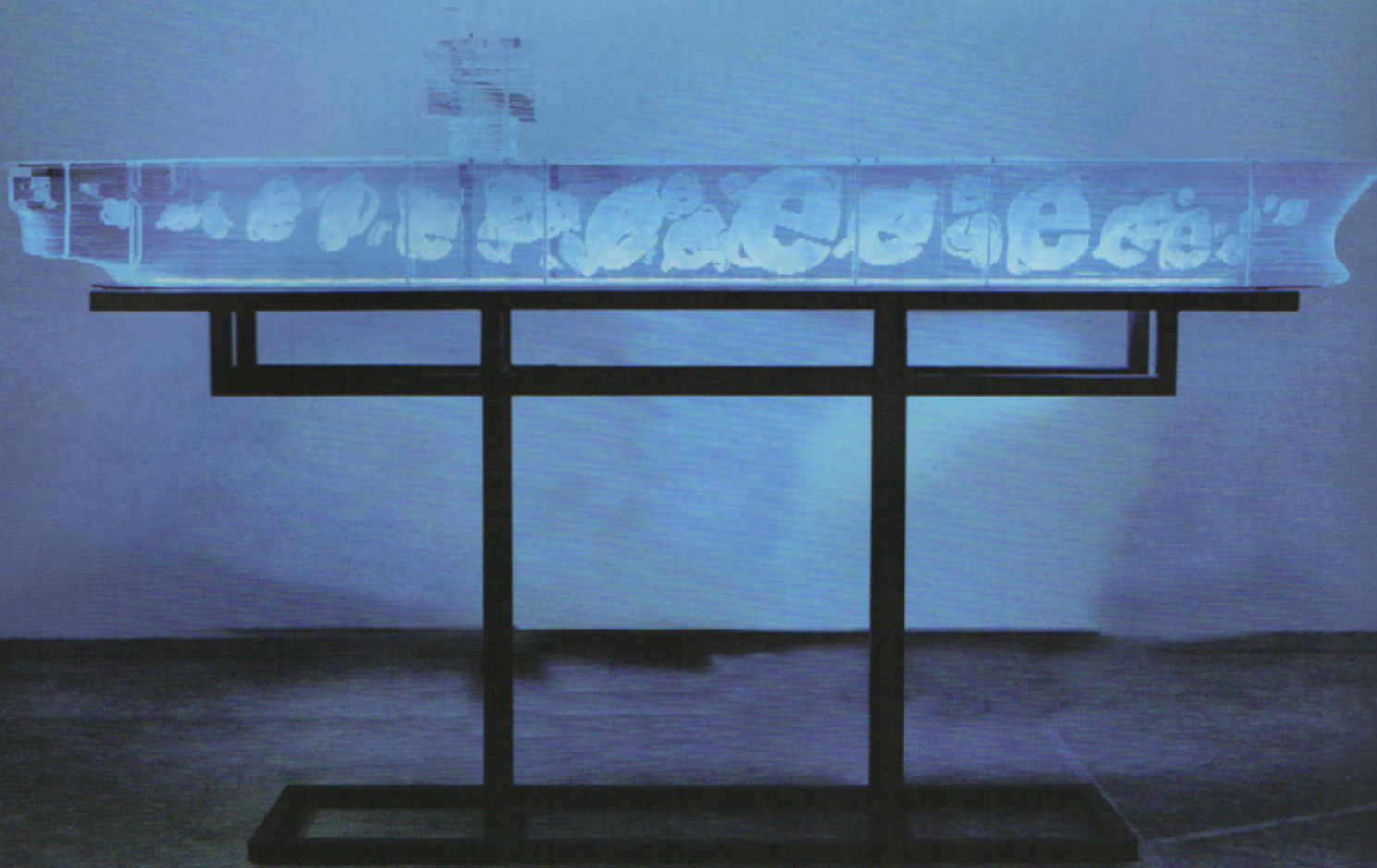


Reincarnation, 2007

Li Hui's recent installation <V> is composed of two ephemeral elements and one tangible one: red lasers, smoke, and a mirror. The mass of laser beams form the shape of a V as they shine down onto the mirror, which is propped up at an angle from the floor. The mirror then reflects the rays back up through the smoke-filled room. They trace lines in space en route to the ceiling far above, where they seem to congeal as a cluster of little red dots. Puzzled at first by this object that strikes through the darkened room, visitors are inclined to wave their arms through the laser beams, causing their moving silhouettes to register on the ceiling as the dots of light blink and reappear.

리 후이의 최근 설치작품 <V>는 빨간색 레이저와 연기의 두 가지 무형요소와 유형요소인 거울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V 형태로 퍼져있는 레이저빔은 바닥의 각도진 거울에 비치게 된다. 이후 거울은 다시 그 광선을 연기가 가득한 방으로 반사한다. 공간에 떠도는 광선들은 마치 작은 빨간 점들이 모인 뭉탕이처럼 응고된 모습으로 더 높은 천장을 향해 뿜어 나간다. 어두운 방을 뚫고 지나가는 이 작품과 처음 마주했을 때 관람객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들의 팔을 광선으로 뻗어보는데, 공간 내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움직이는 그림자로 인해 천장에 빛으로 이루어진 땡땡이 무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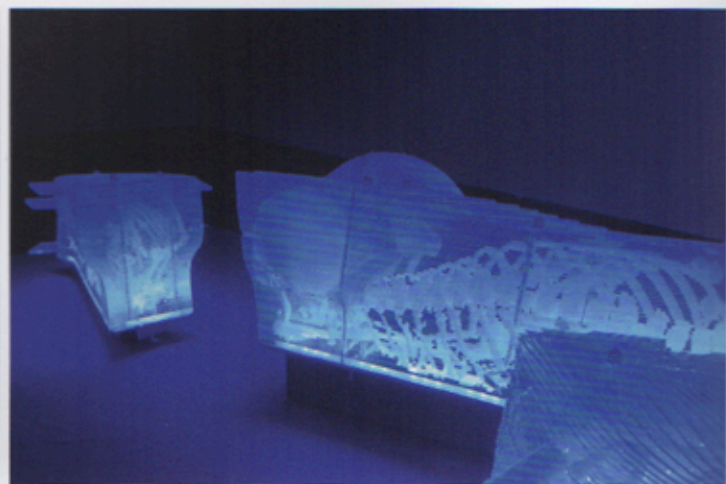
LI HUI ART & SPACE



Ark 2,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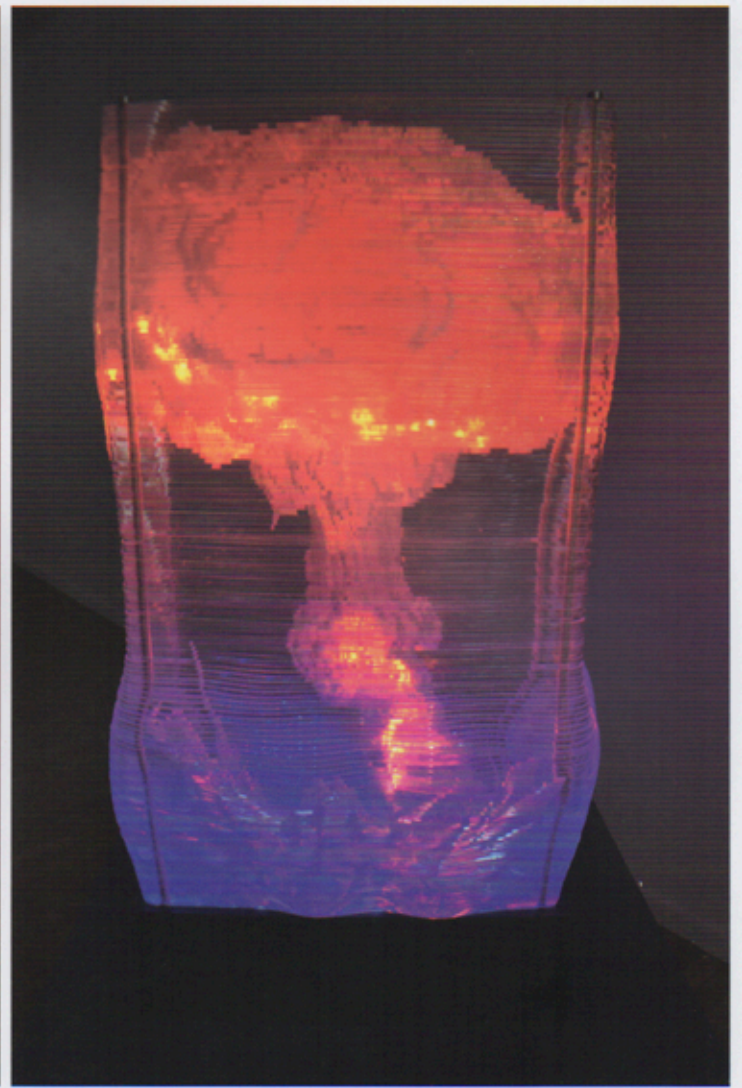
F1, 2007



F1, 2007



Blooming, 2012



Blooming, 2012

In the artist's eyes, the human ability to think and create is an incredible, but often misused power. Hui's LED and acrylic work <Blooming> conveys this feeling beautifully. The illuminated mushroom cloud contained within the work blooms open like a delicate flower, paying homage to the incredible advance made when humans split the atom. The sheer amount of energy created by this reaction can solve our energy crisis, yet instead, it has been harnessed as a terrifying weapon. The contemplative beauty of <Blooming> captures Li Hui's thoughts on human intelligence. Text edited by Liz Youn Kwon / Curator, Editor : Park Minseon

***Image courtesy of Klein Sun Gallery, New York; Zadok Gallery, Florida

Li Hui : PLi Hui (b. 1977, Beijing), at the forefront of a new generation of young Chinese artists in Beijing, manipulates cutting-edge technology to explore both the mystical and rational fundamentals of human existence. Li Hui creates installations of immense beauty by integrating technological media ranging from lasers, LED panels and smoke machines to various metals, wood, mirrors and found objects. He combines this highly technical approach with an introspective artistic philosophy of Buddhism, Daoism, shamanism and mysticism in graceful and captivating conceptual installations and sculptures. Since graduating from the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in 2003, Li Hui has exhibited widely in China and abroad;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in Beijing and Hong Kong, and more recently in the Netherlands, Indonesia and Germany.

작가는 인간의 생각하고 창조하는 능력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지만 때때로 그 힘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이의 LED와 아크릴 작품인 <블루밍>은 이러한 느낌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환하게 빛나는 버섯 모양의 구름은 아주 연약한 꽃 한 송이처럼 만개해 있는데, 이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원자분열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자분열로 인해 생성되는 에너지 양으로 인류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끔찍한 무기로 사용돼 왔다. 이처럼 <블루밍>의 사색적인 아름다움은 인간의 지능에 대한 리 후이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글 편집 : 권이선 / 큐레이터, 편집 : 박민선 기자 ***저작권은 뉴욕의 갤러리인 선 갤러리와 플로리다의 자독 갤러리에 있다.

페리 후이 : 중국에서 젊은 작가세대의 선구자인 베이징 작가 리 후이는 (1977년 베이징 출생)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비스러우면서도 이성적인 인간존재의 근본을 탐구한다. 그는 레이저, LED 패널, 가스배출기부터 다양한 금속, 목재, 거울, 오브제에 이르는 미디어 기술을 통합하여 아름다운 설치작품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그의 전문적인 기술은 불교, 도교, 샤머니즘, 신비주의 등의 자기성찰적인 철학과 융합되어 우아하고 매력적인 개념미술 설치품들과 조각품들로 나타난다. 그는 2003년에 센트럴 아카데미에서 미술 전공으로 졸업한 후, 중국 전역과 해외를 넘나들며 전시를 해오고 있으며, 베이징과 홍콩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독일에서 전시를 했다.